



2026
05.29
주간 제 475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WEEKLY 뉴스

앤스로픽 '미토스(Mythos)' 출시, 중국 AI·사이버 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는 중국산	3
중국산 광통신 부품 글로벌 수요 급증	4

CHINA 창업

[산업분석] 첫 '인공 배아' 우주 실험, 텐저우 10호 과학 물자 운송	7
[산업분석] 수중 작업 AI 등장, 자연어 이해하는 심해 로봇 개발	10
[기업분석] 공간지능 분야 글로벌 기업-매니코어 테크(群核科技)	14
[지역분석] 랴오닝성 푸신 하이테크산업구	18

KIC 뉴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오는 7월 상하이 개최...혁신 기술 이끌 '한국시관' 출격	21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후베이 방문, 2027 동후과학포럼 협력 논의	23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단체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방문	24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6
------------------	----

WEEKLY 뉴스



앤스로픽 '미토스(Mythos)' 출시, 중국 AI·사이버 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0 대 중 8 대는 중국산	3
중국산 광통신 부품 글로벌 수요 급증	4



앤스로픽 '미토스(Mythos)' 출시, 중국 AI·사이버 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

앤스로픽(Anthropic)이 2026년 4월 선보인 최첨단 AI 모델 '미토스(Mythos)'가 글로벌 AI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미토스의 등장은 중국의 AI 및 사이버 보안 산업에 심각한 기술적 도전과 인프라 위기를 안겨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토스가 중국 산업 전반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과 파장을 5대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 기술적 격차와 '비대칭적 경쟁'의 심화

미토스는 일반 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 내 수천 개의 '제로데이(0-day)'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그러나 앤스로픽이 보안 협력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을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서방 국가의 핵심 기업에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해당 협력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로 인해 중국 AI 업계는 선진 기술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기술적 단절' 상태에 직면했으며, 제로데이 취약점 탐지 및 대항 기술 등 가치 높은 하이엔드 보안 분야에서 서방과의 기술 격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벌어지게 됐다.

■ 핵심 인프라 보안의 위기 고조

중국의 금융, 에너지, 공공기관 등 핵심 인프라는 상당 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범용 OS를 기반으로 구동된다. 미토스는 이미 이러한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취약점을 다수 식별한 상태다. 서방 기업들은 미토스를 활용해 취약점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방어벽을 보강하고 있는 반면, 정보 접근이 차단된 중국은 자체 인력을 투입해 모든 위험 요소를 일일이 전수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천문학적인 방어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취약점 패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켜 국가 핵심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을 키우고 있다.

■ 전통적 사물인터넷·네트워크 보안 산업의 생존 위기

미토스의 등장은 'AI 기반의 초고속 공격'과 '기존 보안 제품의 방어 능력' 사이의 치명적인 괴리를 극명히 드러냈다. AI가 생성하는 고도화된 변칙 공격과 자동화된 침투 시나리오 앞에서는 기존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정적 규칙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보안 솔루션들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적 우위를 점한 글로벌 보안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중국 현지 보안 업체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기존 보안 제품들의 시장 입지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는 추세다.

■ 폐쇄적 생태계 고립에 따른 인재·자본 압박

미토스를 둘러싸고 구축된 서방의 기술 장벽은 중국 AI 산업의 인재 고갈과 독자 개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외 시장이 '기술 공유와 인재 협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통해 고속 성장하는 반면, 중국은 벤치마킹할 만한 성숙한 기술 데이터나 외부 생태계의 지원 없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독자적으로 감당하며 AI 보안 기술을 맨땅에서 개발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 '자립형 기술 통제' 및 국산화 전환 가속화

이러한 강력한 외부 압박은 역설적으로 중국 내 AI 및 보안 산업의 국산화 전환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미토스의 충격은 중국 정부와 테크 기업들에게 자체적인 보안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데이터 주권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각인시켰다. 결과적으로 중국 AI 산업은 외부 의존도를 원천 차단하고, 자체적인 알고리즘 감사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AI 보안 생태계' 구축에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요약하자면, 미토스의 등장은 중국 AI 산업에 기술적 고립과 안보 위기라는 엄중한 과제를 던졌지만, 동시에 외부 의존을 탈피해 독자적인 AI 기술 체계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저자: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는 중국산

최신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가운데 8대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산 로봇은 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가격이 1만 6,000달러 수준인 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은 넘어져도 스스로 회복하는 기능과 유연한 동작 성능으로 SNS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로봇 수출액은 113억 2,000만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수출 대상은 148개 국가 및 지역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청소 로봇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선전 난산구(南山区) 과학기술단지의 한 서비스 로봇 기업은 현재까지 12만 대 이상을 출하했다. 청소, 서빙, 안내 로봇 등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은 현재 8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 연구팀은 무게 62kg의 로봇개의 발 부분에 바퀴를 적용해 험지에서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로봇은 3분 동안 연속 백플립과 옆돌기를 수행했으며, 최대 점프 높이는 87cm를 기록했다. 3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된 이 로봇은 중국 내 우수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반년 동안 8차례 성능 개선을 거쳤으며, 해외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같은 산업단지 내 또 다른 기업이 개발한 로봇 팔 역시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수출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산업용 로봇 수출액은 31억6,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었다.

광저우 칸톤페어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 신제품이 잇달아 공개됐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국 바이어들은 AI 통역기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실시간 번역과 노이즈 캔슬링 통화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안경도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IT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중국 스마트 안경 출하량은 246만 대로 전년 대비 87.1% 증가했으며, 해외 출하량도 64.9% 늘어 현재 32개 국가 및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안후이성(安徽) 허페이(合肥)의 한 기업은 2025년 스마트 하드웨어 수출량이 10만 대를 넘어섰고, 매출 규모도 2억 위안을 돌파했다. 해당 제품은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 판매되고 있다.

(출처: 중귀징지망)

중국산 광통신 부품 글로벌 수요 급증

올해 1분기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섬유 케이블과 광모듈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떠오르면서, 일부 기업은 이미 2028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초 장쑤성(江苏) 난통(南通)의 한 광섬유 기업에서는 특수 광섬유인 'G.657.A2' 가격이 1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문량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고객사가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해 선납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정도다. 이 광섬유는 크게 구부러도 손실이 적고 고속 전송이 가능해, 글로벌 대규모 AI 연산 센터 구축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핵심 원재료인 광섬유 프리폼(preform)은 개당 가격이 100만 위안을 넘는다.

2026년 전 세계 G657 계열 광섬유 수요는 3억 7,000만 코어킬로미터에 달할 전망이지만, 중국의 실질 생산능력은 2억 1,000만 코어킬로미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부족 규모는 46%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전체 생산능력의 30~40%를 특수 광섬유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산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간 3,500톤 규모 프리폼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약 40억 위안의 투자와 최소 2년 이상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

글로벌 헬륨 부족도 광섬유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중국산 헬륨 사용 확대와 헬륨 회수율 개선을 통해 공급 문제 대응에 나섰다. 현재 중국산 헬륨 사용 비중은 50%를 넘어섰으며 향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6년 해외 신규 연산센터 투자 규모는 연간 4조 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중국 광통신 기업들도 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중국의 광섬유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6% 증가했고, 수출액은 7억 9,000만 위안으로 126.8% 늘었다. 광신호 변환을 담당하는 광모듈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광모듈 수출 증가율은 약 30%에 달했다.

광모듈은 연산 센터에서 광전 변환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1.6T 광모듈은 1초에 2GB 용량 고화질 영화 95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개당 가격은 약 1,000달러 수준이다. 북미 시장

수요만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26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한 기업은 올해 3월 12.8T급 XPO 기반 '슈퍼 광모듈'을 처음 공개했다. 이는 1.6T 광모듈 8개를 결합한 수준의 성능으로, 10만 GPU급 초대형 AI 클러스터 전용 제품이다.

차세대 연산 센터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박사급 연구원 500명 신규 채용 계획까지 내놓으며 연구개발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광통신 전시회에서는 경쟁사보다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먼저 내놓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현재 광통신 산업의 경쟁 구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국 기업들의 800G 이상 광모듈 판매량은 전년 대비 139배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광섬유와 광모듈 수출 급증 현상이 AI 연산 혁명이 만들어낸 구조적 변화라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광모듈 시장의 70% 이상, 광섬유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공 코어 광섬유와 초고속 상호연결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주문 증가세 이면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기술 고도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수출 확대 흐름도 산업 고도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지속적인 기술 혁신 없이는 현재의 수출 증가세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런민르보)

참고자료

- ◆ 중귀징지망(中国经济网).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는 중국산
<https://mp.weixin.qq.com/s/Hk8ERL6gtmZirzWRfDgeFw>
- ◆ 런민르보(人民日报). 중국산 광통신 부품 글로벌 수요 급증
https://mp.weixin.qq.com/s/ThzLeEb_yPWIEEZYfuJJ6g

CHINA 창업



[산업분석] 첫 '인공 배아' 우주 실험, 텐저우 10 호 과학 물자 운송	7
[산업분석] 수중 작업 AI 등장, 자연어 이해하는 심해 로봇 개발	10
[기업분석] 공간지능 분야 글로벌 기업-매니코어 테크(群核科技)	14
[지역분석] 랴오닝성 푸신 하이테크산업구	18



[산업분석] 첫 '인공 배아' 우주 실험, 텐저우 10호 과학 물자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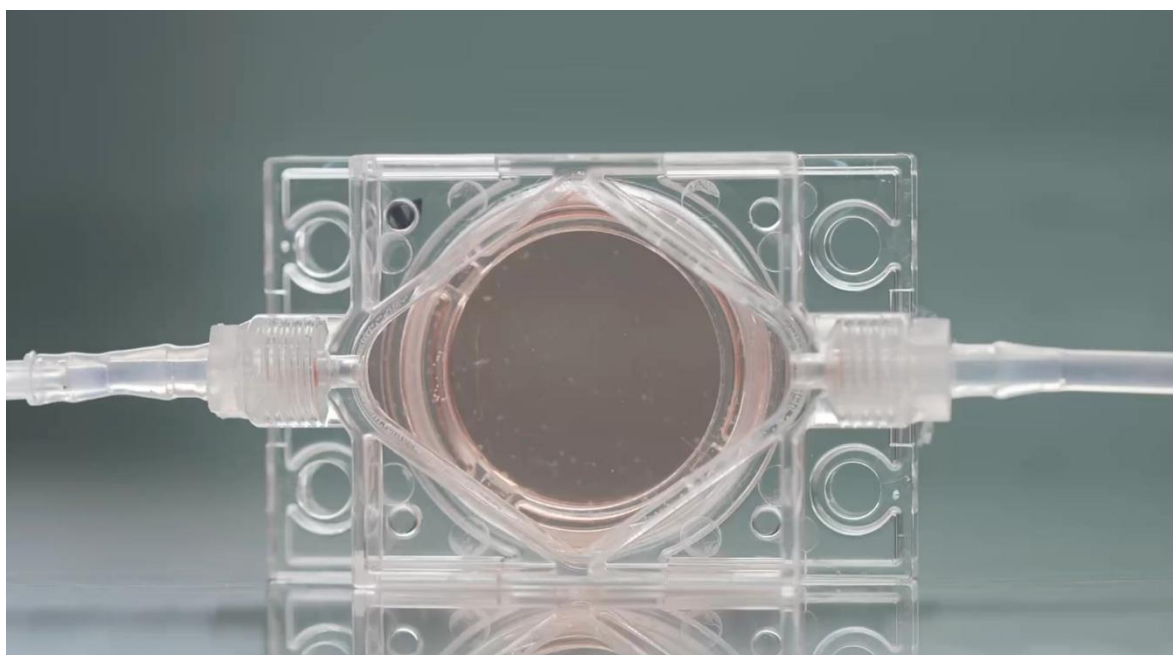
5월 11일 오전 8시 14분, 화물우주선 텐저우(天舟) 10호가 원창(文昌) 우주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텐저우 10호에는 실험 장비와 샘플, 소모품 등 총 67종, 768.2kg 규모의 화물이 실렸다. 해당 물자는 생명과학과 미세중력 환경연구, 우주 응용기술, 천문·지구과학 등 4개 분야 41개 실험에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관측과 우주 환경에서의 배아 발달 연구도 포함됐다.

세계 최초 '인공 배아' 우주 실험 진행

이번 텐저우 10호 임무에서는 세계 최초의 '인공 배아' 우주 실험이 진행된다. 발사에 앞서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위러첸(于乐谦) 연구팀은 인간 줄기세포를 활용해 인공 배아 샘플을 제작했다. 몇 cm 크기의 작은 장치 안에는 두 가지 실험 모델이 담겼다. 하나는 자궁 세포에 부착해 배아 착상 과정을 구현한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세유체 칩 안에서 초기 배아가 배반포에서 낭배 단계로 발달하는 과정을 재현한 모델이다. 이는 실제 인간 배아는 아니며 완전한 개체로 성장도 불가능 하다. 다만 생명 탄생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세포 성장과 분화 과정을 재현한 연구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주 개발이 확대되면서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 같은 극한 환경이 인간의 장기 체류와 생식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생쥐와 쥐 등 설치류 동물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발사 12시간 전 샘플은 발사대로 옮겨져 텐저우 10호의 세포 생명유지 장치에 설치됐다.



이번 임무는 세계 최초의 인공 배아 우주 발달 연구로, 이를 통해 우주 환경에서의 배아 발달 연구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공 배아는 우주정거장에서 5일 동안 배양되며, 우주비행사들이 배양 과정을 함께 관리한다. 자동화 시스템은 매일 새로운 배양액을 공급하며, 우주정거장은 실제 우주 방사선과 장시간 미세중력 환경을 그대로 제공한다. 실험이 끝난 뒤 샘플은 우주정거장 내에서 냉동 보관했다가 이후 지상으로 회수돼 정밀 분석을 거치게 된다.

우주 배아 연구 본격화

이번 인공 배아 실험은 텐저우 10호에 실린 우주 생명과학 실험 5개 가운데 하나다. 중국 우주정거장 바이오기술 실험장비에는 생쥐 세포 배아 3종도 함께 실렸다. 연구진은 우주 환경이 일종의 '고감도 확대경' 역할을 해 배아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손상 위험을 더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반 환경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기형 유발 위험 유전자와 이상 신호 전달 경로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연구 데이터는 향후 임상 치료 등 실제 의료 현장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중국이 생쥐 배아를 우주로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발사된 '스젠(实践) 10호' 위성은 초기 생쥐 배아를 우주로 보내 2세포 단계에서 배반포 단계까지의 발달 과정을 성공적으로 관찰했다. 당시 세계 최초로 포유류 배아의 우주 발달을 확인한 사례였다. 다만 이후 연구에서 배반포 형성을 감소와 배아 발달 이상, DNA 손상 등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난대학(中南大学) 상야(湘雅) 공공보건 학부 황루이췌(黄瑞雪) 연구팀은 '우주 방사선에 따른 민감 조직 손상과 발암 초기 과정의 메커니즘 및 보호 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실험 대상은 쌀알 크기의 뇌 오가노이드다. 이 오가노이드는 인간 만능줄기세포를 유도 분화 및 배양해 만든 것으로, 실제 대뇌피질과 유사한 신경세포 층 구조와 시냅스 연결을 갖추고 있다. 자발적인 신경 전기 활동도 나타내며, 현재까지 개발된 3차원 뇌 오가노이드 가운데 실제 인간 뇌와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제브라피시 배아와 생쥐 조골세포도 우주정거장에서 배양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무중력 환경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주비행사 건강 관리와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주에서 탄소 배출 감시

우주 천문·지구과학 연구를 위해 이번 텐저우 10호에는 소형 고해상도 온실가스 점오염원 공동 관측 장비도 실렸다. 해당 장비는 홍콩과학기술대학이 주도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 중·저위도 주요 배출원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를 정밀 측정할 수 있다. 홍콩 연구진이 우주정거장 응용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비는 수백 미터 단위 해상도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장비다. 고해상도·고정밀 관측 성능을 갖춰 약 400km 상공에서 특정 지역의 이산화탄소·메탄 배출 농도를 정밀 측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에 가까운 탄소 배출량까지 산출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장비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중요한 데이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텐저우 10호에는 미세중력 유체물리학과 연소과학, 우주 재료과학 분야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 우주 환경에서 재구성이 가능한 액체 기반 연성 초물질 연구를 비롯해, 미세중력과 압력·산소 농도 변화 환경에서 청정 가스 소화제·확산 화염의 상호작용 연구, 복합 조성 바이오글라스 제조·특성 연구 등이 포함됐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연성물질과 복합유체 연구, 미세중력 환경에서의 재료 제조 메커니즘 연구, 차세대 응용 신소재와 제조기술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중궈자이런항톈(中国载人航天). 첫 '인공 배아' 우주 실험, 텐저우 10호 과학 물자 운송
https://www.cmse.gov.cn/fxrw/ttz10h/mtjj/202605/tz20260514_57474.html

[산업분석] 수중 작업 AI 등장, 자연어 이해하는 심해 로봇 개발

심해 로봇에게 일상적인 말로 작업을 지시하면 이를 이해하고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이지만, 최근 광저우 난사(南沙)의 한 기업이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선하이즈런'(深海智人, Deep Sea Smart Man)(광저우) 테크놀로지는 최근 수중 로봇 협업 AI 모델 'SEAgent 1.0'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원격 조종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과 AI가 함께 작업을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연어 기반 명령을 이해하고 작업 수행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러 대의 수중 로봇을 동시에 제어해 협업 작업도 수행한다.

2023년 난사에서 운영을 시작한 '선하이즈런'은 워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湾区) 해양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해 로봇 분야를 깊이 연구하던 소규모 팀에서 출발해, 현재는 1억 위안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하고 핵심 기술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심해 개발의 신예 기업으로 우뚝 섰다. 최근 발표된 'SEAgent 1.0'은 심해 로봇에게 더욱 똑똑한 '작업용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하며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도 이해하는 심해 로봇

실제 해저 작업 현장에서는 로봇에게 "저쪽 시설 상태 좀 확인해봐", "여기 이상한 것 같은데 장비 하나 보내봐"처럼 일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는 경력이 풍부한 조종사가 여러 차례 내용을 확인한 뒤 이를 장비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 체계로 다시 입력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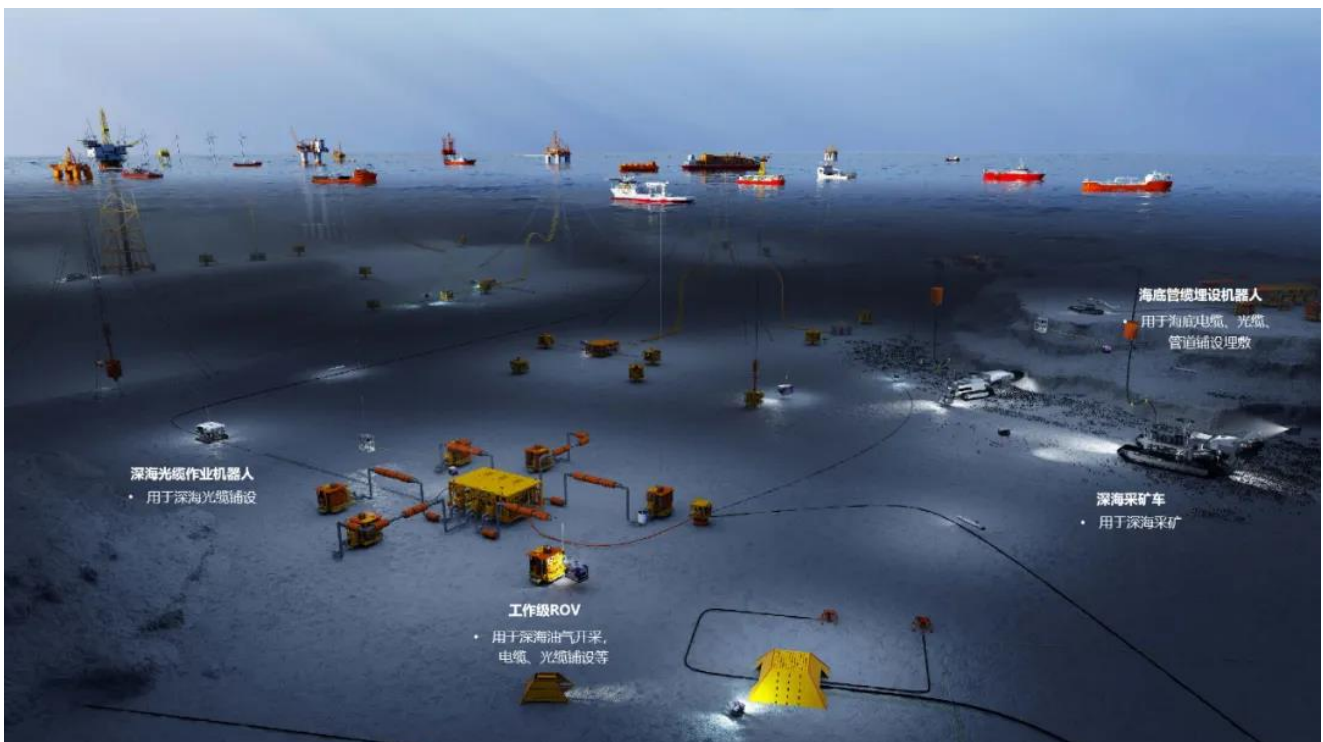
반면 SEAgent는 이러한 자연어 표현 속에서도 작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보완하고, 부족한 내용을 구조화된 명령 체계로 정리한다. 작업 대상과 구역, 시간, 목표, 제한 조건 등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중간에 지시를 변경하더라도 전체 작업 흐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위험 가능성이 담긴 표현도 인식해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작업 가능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

SEAgent 1.0은 단순히 지시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작업 수행 가능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지시를 현재 작업 조건에 맞춰 분석한다. 작업이 장비 성능 한계를 넘어서거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재 환경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작정 작업을 실행하지 않는다. 대신 위험 요소와 한계 조건을 먼저 안내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는 장비 성능과 감지 범위, 환경 조건, 통신 상태, 안전 기준 등의 정보가 함께 반영된다.



작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지, 추가 조건이 필요한지, 수행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지 등 기존에는 숙련 인력의 경험에 크게 의존했던 판단 과정을 이제는 AI 시스템이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경량화 설계로 제한된 연산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

SEAgent는 실제 해상 작업 환경에 맞춰 경량화 구조로 설계됐다. 제한된 연산만으로도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현장 적용성이 높고 도입 부담도 낮다.

또 모듈형 기능 체계를 바탕으로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다양한 수중 작업 환경에 대응하는 지능형 작업 판단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장비와 환경 정보, 작업 경험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심해 작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범용 AI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업

SEAgent는 선하이즈런이 개발 중인 무인 작업 실험선과도 연동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두세 대 이상의 수중 로봇이 동시에 협업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수중 로봇에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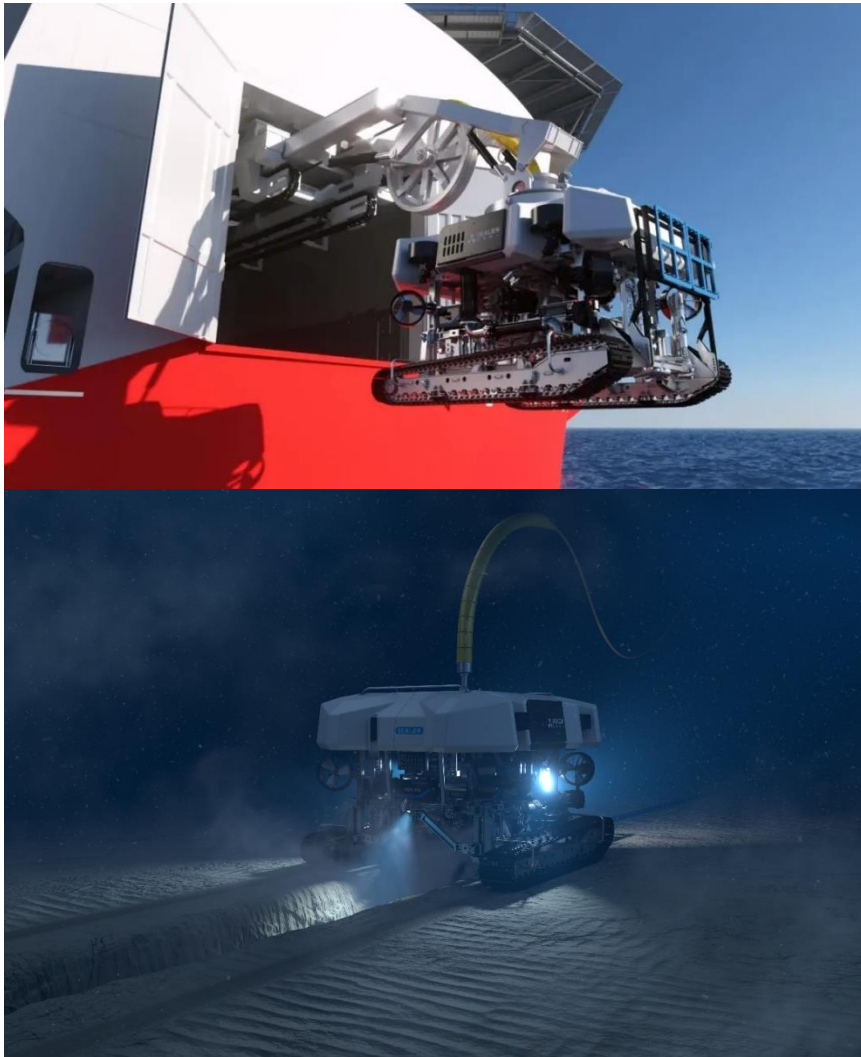


향후 심해 원유·가스관 점검, 해저 케이블 유지보수, 광물 탐사 등 현장에서는 여러 대의 로봇이 통합 체계 아래 역할을 나눠 작업하게 될 전망이다. 작업자는 로봇마다 세부 지시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SEAgent에 작업 목표만 전달하면 된다. 이후 시스템이 수중 환경을 분석해 각 로봇별로 작업을 배분하고 전체 작업 흐름을 조율하게 된다.

난사(南沙)에서 성장한 심해 로봇 기업

'선하이즈런'은 2023년 난사에서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작은 연구팀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해외 대형 수주를 확보하고 심해 로봇 시스템 전체를 해외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SEAgent 공개를 계기로 심해 작업 역시 현장 경험과 숙련 인력 중심 구조에서 데이터와 AI 기반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난사(南沙)는 해양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여기에 해양기술 투자펀드와 냉천 생태계 연구, '몽상(梦想)'호 등 대형 연구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심해 기술 분야의 신생 기업 육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난사 측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실제 심해 작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해 작업에 인간 대신 로봇이 본격 투입되는 시대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 대만과학기술포럼(大湾区科学论坛). 수중 작업 AI 등장, 자연어 이해하는 심해 로봇 개발
<https://mp.weixin.qq.com/s/nsS7b6SkJOrD19cqyknvUw>

[기업분석] 공간지능 분야 글로벌 기업-매니코어 테크(群核科技)



기업 개요

매니코어 테크(群核科技)는 공간지능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현실 세계 적용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회사는 공간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공간 편집 툴-공간 데이터-공간 대형모델'을 연결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했으며, 관련 기술과 제품은 공간 설계와 3D 콘텐츠 제작, 이커머스 광고 생성, 문화유산 보존, 산업용 디지털 트윈, AI 에이전트 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산하 플랫폼인 쿠자러(酷家乐)와 글로벌 버전 쿠홈(Coohom)은 현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 공간 설계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제품

매니코어 테크는 쿠자러(酷家乐)와 쿠홈(Coohom), 럭스리얼(LuxReal) 등을 통해 3차원 공간 구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 스페이셜버스(SpatialVerse) 플랫폼을 기반으로 로봇과 AI 에이전트를 위한 가상 학습 공간을 구축해 다양한 공간 환경에서 AI 학습과 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분	사진	소개
쿠자러(酷家乐)		3D 실시간 렌더링과 공간 대형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간 설계 소프트웨어
쿠홈(Coohom)		글로벌 이용자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간 설계 소프트웨어
럭스리얼(LuxReal)		3D 기술 기반 AI 콘텐츠 제작 툴
스페이셜버스(SpatialVerse) 공간지능 학습 플랫폼		공간지능 학습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물리 기반 데이터 엔진

솔루션

산업용 디지털 트윈과 이커머스 마케팅, 문화유산 보존 등 분야에 공간지능 기반 산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구분	사진	소개
공간 디자인 및 콘텐츠 생성		가구·건축·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의 고질적인 과제인 긴 디자인 주기와 높은 콘텐츠 제작 비용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다. 쿠자러(Kujiale)-쿠홈(Coohom)의 공간 디자인 및 실시간 렌더링 기술과 럭스리얼(LuxReal)의 AI 비디오 생성을 결합하여, 기존에 수일이 걸리던 작업을 수분 만에 시각화함으로써 고품질 마케팅 콘텐츠 제작의 비용과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산업용 디지털 트윈·시뮬레이션		산업 제조와 로봇 개발, 피지컬AI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스페이셜버스 플랫폼 기반으로 스페이셜트윈을 활용한 고정밀 디지털 트윈 구축과 스페이셜데이터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을 지원한다.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자와 브랜드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쿠자러 전자상거래 스튜디오 촬영 시스템을 통해 3D AI 가상 촬영과 대규모 마케팅 콘텐츠 생성을 지원한다.
문화유산 디지털화·몰입형 체험		문화재 보호 기관과 박물관,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아홀로 플랫폼 기반으로 공간 재구성, 생성, 이해, 편집 기능 등을 제공한다.

주요 사례

■ 해외 크리에이터 자인(Zein), 아홀로(Aholo)로 중국 사찰 디지털 복원

해외 콘텐츠 크리에이터 자인(Zein)은 아홀로(Aholo)를 활용해 리수이(麗水)에 위치한 스쓰사(時思寺)를 디지털로 구현했다. 약 2시간 동안 현장 데이터를 수집한 뒤 사찰 내부와 주변 환경을 1대1 비율로 정밀 복원했으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링크를 통해 중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 피코(PICO)와 '공간지능+XR' 생태계 구축 협력

XR 플랫폼 기업 피코(PICO)도 매니코어 테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양사는 피코의 XR 하드웨어 시스템과 매니코어 테크의 공간 데이터셋을 결합해 세계 최대 규모 인터랙티브 XR 콘텐츠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 고객에게 XR 콘텐츠 제작 기반을 제공하고 '공간지능+XR' 생태계 확장에도 추진한다.



■ 화처(华策)와 가상 촬영 기술 협력

중국 영상 콘텐츠 기업 화처잉스(华策影视)는 매니코어 테크의 아홀로(Aholo) 플랫폼을 기반으로 가상 촬영 세트 제작과 영상 장면 복원 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협력에 나섰다. 양사는 제작 효율과 영상 표현력을 높이는 동시에, 영상 산업의 디지털·지능화 전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 매니코어 테크 웹사이트(群核科技官网)
<https://www.manycoretech.com/>

[지역분석] 랴오닝성 푸신 하이테크산업구

개요

■ 허가 일자

랴오닝성 푸신 하이테크산업구는 2013년 설립

■ 주요 산업

신에너지, 장비제조, 농산물 심층가공 산업

■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하이테크기업	74개	87개	17.57%↑
공업 총생산액	251.87억 위안	264.96억 위안	5.20%↑
순이익	29.80억 위안	32.34억 위안	8.52%↑
영업 수익	292.49억 위안	307.19억 위안	5.02%↑

푸신 하이테크산업구(阜新高新区)는 2006년 랴오닝성(辽宁省) 정부 승인을 거쳐 성급 하이테크산업구로 설립됐으며, 2013년 12월 국무원 승인을 받아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로 승격됐다. 현재 중국 서부 권역을 중심으로 한 신에너지, 장비제조, 전력전자 산업과 동부 권역의 농산물 심층가공 산업을 축으로 다양한 산업이 연계 발전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기업의 양적 및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뤄지면서 단계별 육성 정책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기술구 내에는 현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47개, 국가급 첨단기술기업 87개, '초기 성장형 기술기업(雏鹰)' 29개, 가젤 기업 19개가 자리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도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다.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시(市)급 산학연 협력 육성 연맹으로, 2개 기업은 시급 우수 산학연 협력 연맹

으로 선정됐다. 또 2개 기업은 시급 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상허농목(祥和农牧)과 성푸리 고분자소재(晟氟利高分子材料)는 랴오닝성 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수상했으며, 쉬공(徐工), 베이신성(北鑫星) 등 4개 기업은 랴오닝성 과학기술진보상 3등상을 받았다. 이진전자(亿金电子)와 루이린수소 에너지(瑞麟氢能)는 혁신창업대회 신에너지 분야 성장 부문에서 각각 2등상과 3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박사 인재 기업 연계 프로그램', '연구팀 통합 유치' 등의 사업을 통해 인재 유치와 기업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구 내 20여 개 기업이 랴오닝공업대 박사 인력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구팀 통합 유치' 사업을 통해 중국석탄과공(中煤科工)과 선양주조(沈阳铸造) 연구소 등 6개 혁신팀을 유치했다.

KIC 뉴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오는 7월 상하이 개최...혁신 기술 이끌 '한국 AI 관' 출격	21
KIC 중국 김종문 센터장 후베이 방문, 2027 동후과학포럼 협력 논의	23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단체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 방문	24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6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오는 7월 상하이 개최...혁신 기술 이끌 '한국시관' 출격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최전선을 탐구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는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이하 WAIC)'가 오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 및 상하이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대회에는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한국시관(Korea Pavilion)'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국내 유망 AI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 중국 정부 주도 및 글로벌 석학 참여하는 AI 플랫폼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외교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중앙 부처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WAIC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다. 지난 2018년 창설된 이래 매년 상하이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정상급 과학자, 기업가, 정부 관계자, 투자자들이 모여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역대 튜링상 및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메타(Meta) 수석 과학자 얀 르쿤(Yann LeCun),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등이 연사로 참여하며 세계적인 공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WAIC 2026'은 주회장인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와 상하이시 내 추가 신설 전시관을 포함해 총면적 40만 m² 이상의 공간에서 전방위적으로 치러진다. 주회장 내 순수 전시 면적은 7만 m² 규모로 구성되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글로벌 빅테크 및 유니콘 스타트업 등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회의·포럼, 전시·시연, 시상·경연, 지능형 체험, 혁신 인큐베이팅 등 5대 핵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피지컬AI, 고성능 추론 기술, AI 기반 제조업 자동화 등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신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국시관' 전격 운영... 국내 유망 기업 8개 사 참여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 시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KIC중국은 WAIC 주최 측 및 중국 공신부 산하 한중핵심혁신센터와 뜻을 모아 이번 '한국시관' 조성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시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국내 유망 AI 기업 8개 사가 참여한다. 참가 기업들은 생성형 AI와 미래 산업, 지능형 로봇 및 자동화, AI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등 핵심 전시 분야에서 독자적인 솔루션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데 있다. 참가 기업들은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현지 정부 관계자, 빅테크 바이어, 투자자와의 1:1 매칭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국내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및 현지 네트워킹 연계로 실질적 성과 도출 기대

지난 대회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통합 25억2000만 뷰의 온라인 트래픽과 355,000명의 오프라인 방문객을 기록한 WAIC는 참여 기업들에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왔다. 실제로 지난 대회 기간 중 20개 이상의 산업 매칭 세션, 100개 이상의 일대일 미팅, 150개 이상의 글로벌 구매자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스타트업 예상 거래액 2억6800만위안, 예상 구매액 16억~26억6000만위안에 달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한 바 있다.

KIC중국은 이번 한국시관 운영을 통해 국내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 SI 선도 기업 및 투자사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현지 바이어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후베이 방문, 2027 동후과학포럼 협력 논의

5월 15일, 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汉)을 방문해 후야보(胡亚波) 후베이성 부성장, 천판(陈攀) 성정부 부비서장, 리잔(李湛) 우한시 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국제교류연맹(IEF) 신광오(申光五) 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2025~2026년 KIC중국이 우한에서 추진해온 협력 사업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2027년 KIC중국의 동후과학포럼(东湖科学论坛) 한-중 과학기술 협력 세션 주관, 한국 기업의 우한 첨단기술개발구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후베이성과 한국 간 과학기술 혁신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으며, 2027년 동후과학포럼과 향후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에도 긍정적인 출발점을 마련했다.



칭화대학교 한국유학생단체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방문

5월 15일, 칭화대학교(清华大学) 한국인 유학생 단체가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를 방문했다. 김종문 센터장은 다국적 기업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혁신창업 생태계의 발전 현황과 정책 지원 강점,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핵심 분야의 발전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거점으로서 KIC중국의 역할과 지원 기능을 설명하고, 시장 진출 전략, 리스크 대응, 현지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중국 유학 생활을 통해 체감한 디지털 경제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이번 방문이 한-중 과학기술 혁신 협력의 가능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국 내 인턴십과 취업, 한-중 간 혁신 협력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어 유학생들은 KIC중국의 안내로 중관촌(中关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전시센터를 찾아 중관촌의 발전 과정과 주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와 기술 사업화 성과, 과학기술 혁신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중관촌의 혁신 생태계와 창업 분위기를 직접 체감했으며, 중국 과학기술 혁신 발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참관이 향후 한·중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2026년 (제4회) 국제 자동차 신소재 컨퍼런스 (ICNMAI2026)	2026.05.27-2026.05.28	안후이	자동차
제6회 중국-해외 광산업 공급망 발전 포럼	2026.06.10	베이징	에너지
2026년 무인 항공기(UAV) 응용 및 제어 국제 컨퍼런스	2026.06.25-2026.06.27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중국 스마트 에너지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07.09-2026.07.11	청두	에너지
2026년 제11회 국제 신호 및 영상 처리 학회 (ICSIP2026)	2026.07.17-2026.07.19	창저우	정보 기술
2026년 인공지능 및 정밀의료 국제 심포지엄 (AIPHC)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10회 국제 원격탐사 기술 및 응용 컨퍼런스 (ICRSTA)	2026.07.17-2026.07.19	청두	정보 기술
제6회 국제 의약화학 및 신약 개발 심포지엄 (MCDD)	2026.07.17-2026.07.19	청두	의료건강
제8회 기계 학습, 패턴 인식 및 지능형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MLPRIS)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2026년 가상현실 연구 및 응용 국제 심포지엄 (VRRA)	2026.07.17-2026.07.19	청두	인공지능
제9회 지능형 로봇 및 제어 공학 국제 학술 대회(IRCE2026)	2026.08.03-2026.08.06	우루무치	인공지능
제2회 스마트 전망 및 지속가능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SGSE2026)	2026.08.03-2026.08.05	란저우	에너지
2026 중국 자동차 내외장 지능형 및 혁신 컨퍼런스	2026.08.12	상하이	자동차
2026 중국 자동차 시트 기술 혁신 서밋 포럼	2026.08.13	상하이	자동차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